

Rethinking the Myth of Sky-Earth Separation: Focusing on Daesoon Thought

Jooheui Lee *

Jungw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puts weight on the fact that the phrases from the ancient Chinese literature such as 『Shanhaijing』, 『Shangshu』, and 『GuoYu』, which contains the ancient story of ‘Sky-Earth Separation,’ and the phrases from the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he scriptures of Daesoon Jinrihoe 『JeonGyeong』 in the Example Section of 81, and in the Example Section of 8, will have the same meaning.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hrases from the three books of the Chinese literature on ‘Sky-Earth Separation’ and the phrases from 『JeonGyeong』 and to examine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Sky-Earth Separation’ from Daesoon thought.

[Contents] It was confirmed in the Example Section of 8 from 『JeonGyeong』 that the situation of ‘Sky-Earth Separation’ in the three books is a part of incompatibility in the Former World, and it was found that in the Latter World, the historical situations of the three Chinese books and those of 『JeonGyeong』 were the same as the Example Section of 81.

[Conclusions] As a result, all four books of the literature were able to reveal that God could not reveal his virtue, and that the people influenced by God could not be trusted, and that role dissonance was the root cause of ‘Sky-Earth Separation.’ In the era of enlightenment of the Latter World, the reason why the Daesoon Jinrihoe aims for the time of King Yao and King Shun is that there existed the Kings Yao and Shun, the exemplary adults who practiced virtue to correct the order of God and humans and ruled everyone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law in harmony after the ‘Sky-Earth Separation.’

[Keywords] Sky-earth separation, The former & the latter world, The harmony of humans and god, The virtue of king yao and king shun

* Corresponding to Jooheui Lee (Professor, Department of Religious Cultural Heritage, Jungwon University)

E-mail : bog2duru@jw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절지천통 신화 재고: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이주희

중원대학교 종교문화재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절지천통’ 고사가 있는 고대 중국 문헌 『산해경』, 『상서』, 『국어』와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 예시 81절에 “후천에는……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의 내용과 예시 8절에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다.” 고 한 구절이 서로 의미가 같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절지천통에 대한 세 문헌과 『전경』 구절의 의미 비교 후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절지천통의 의미와 그 지향점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 내용] 2장에서는 세 문헌의 절지천통 고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산해경』은 전욱이 중·려에게 하늘 땅 사이를 더욱 벌리게 하는 단순기록이다. 『상서』는 치우(신)로 인해 시작된 난으로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는데, 백성들을 홍익한 형벌로만 제재한 묘족의 대를 끊고, 중·려에게 명하여 신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국어』에서는 구려의 악덕 이후 무너진 인신관계로 재앙이 거듭 일어나자, 전욱이 중에게는 하늘(신)을 관장하게 하고, 여에게는 땅(백성)을 관장하게 한 것이 절지천통이다. 3장에서는 세 문헌의 절지천통한 상황이 곧 선천 상극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경』 예시 8절에서 확인하였고, 후천은 예시 81절처럼 된다는 것으로 세 문헌과 『전경』이 역사적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결국 시대를 뛰어넘어 네 문헌 모두 신은 명덕을 밝힐 수 없었고, 신의 영향을 받은 백성은 충신할 수 없었던 역할 부조화가 절지천통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후천 개벽시대를 맞이하여 대순진리회에서 요·순(堯·舜)시대를 지향하는 이유는 절지천통 후에 신인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덕치를 행하여 창생들을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린 모범적 성인들이 요·순임금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순사상에서 요·순시대를 지향하는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절지천통(絶地天通), 선·후천, 인신(人神)관계의 조화, 요순(堯·舜)의 덕치(德治)

I. 서론

일반적으로 ‘땅과 하늘의 분리 또는 단절(절지천통)’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이에 관한 중국의 문헌은 『산해경』 「대황서경」, 『상서』 「여형」, 『국어』 「초어 하」가 있다. 세 문헌의 ‘절지천통’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 다르다. 『산해경』은 전옥이 중·려 두 신하에게 하늘을 위로 들어 올리게 하고, 땅은 억누르게 하였다는 단순 기록이다. 다른 두 문헌은 치우 또는 구려가 덕을 어지럽힘을 시작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인간과 신의 역할이 섞여 인신이 서로를 모독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로써 ‘절지천통’의 용어가 쓰였는데, 이 뜻을 포함하여 현상적으로 땅과 하늘의 분리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절지천통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세 문헌이 집필된 시기와 저자의 집필 의도, 문헌의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관점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 연구로는 임현수, 조현설, 이유진, 홍윤희 등이 있으며 낙원상실,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 중화주의 반영의 관점으로 나타난다(Lee, 2002: 462-468; Lim, 2014:337-370; Cho, 1998:146-173; Hong et al., 2002:1-19). 절지천통의 본질이 덕과 천명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런데 세 문헌이 쓰인 4,000여 년 이후 민족 종단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 예시 81절에 “후천에는……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라는 구절과 『전경』 예시 8절에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대순진리회는 상극이 지배하는 세상을 선천 세상, 상생 조화의 시기는 도래할 후천 세상이라고 규정한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절지천통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세 문헌에서 바라보듯 신인부조화로 인한 땅과 하늘의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고대 세 문헌의 절지천통에 관한 내용과 의미를 비교분석하고, 『전경』에서의 절지천통이 갖는 의미와 그 지향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고대 세 문헌에 나타난 ‘절지천통’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3장에서는 『전경』에서 절지천통을 의미하는 구절 예시 81절 · 예시 8절을 통해 세 문헌과의 관련성에 대해 짚어보겠다. 특히 『국어』와 『전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을 보고, 절지천통의 근본 원인과 상징 그리고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탈종교화시대에 문명의 발달로 인한 폐해인 신과 인간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II. 중 · 려의 '절지천통'에 관한 고대 세 문헌 비교 분석

1. 세 문헌에 나타난 중려의 절지천통 고사

신하 중 · 려를 통한 '절지천통' 고사가 기록된 문헌은 『산해경(山海經)』 「대황서경(大荒西經)」(이하 산해경으로 약칭) · 『상서(尙書)』 「주어(周語) · 여형(呂刑)」(이하 상서로 약칭) · 『국어(國語)』 「초어 하(楚語下)」(이하 국어로 약칭)가 있다. 『산해경』은 신화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편찬 연도를 알 수 없으며, 『상서』는 이제삼왕(二帝三王) 시대의 기록이며, 『국어』는 이보다 400여 년 뒤, 주나라의 좌구명이 춘추시대 8국의 역사를 나라별로 적은 책이다. 1절에 서는 세 문헌 속 절지천통의 내용과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과제로 한다.

1) 『산해경』 「대황서경」

『산해경』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황 가운데에 산이 있는데 그 이름을 일월산이라고 하며 하늘의 지도리이다. (이곳에 있는) 오거천문은 해와 달이 지면 들어가는 곳이다. 이 산에 신이 있는데 사람 얼굴에 팔은 없고 두 발은 거꾸로 머리 위에 붙어 있으며, 이름을 허라고 한다. 전욱이 노동을 낳고 노동이 중과 여를 낳았는데, 제(帝)가 중에게 하늘을 들어 올리게(獻) 하였고, 여에게는 땅을 억누르게(邛) 하였다. 땅이 이에 열을 낳았는데 열은 서쪽 끝에 살면서 해, 달, 별의 가고 머무름을 주관한다.¹⁾

→ 임금이었던 전욱이 자신의 손자인 중에게는 하늘을 들어 올리게 하고, 여에게는 땅을 억누르게 했다'는 단순 기록이다. 천지창조 같지만, 문장 서두에 대황 가운데 일월산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언급했기에 천지미분의 혼돈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와 달이 드나드는 오거천문이 있어 이미 천지는 분리되어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더구나 신화 속 인물이자 중국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오제 중 서열 세 번째이자 황제 현원의 손자 전욱이라는 단서가 있기에 개벽신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기에 이미 있던 천지 사이를 전욱이 중 · 려에게 명해서 지천 사이를 더욱 벌려 놓은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를 명령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의문점은 다른 두 문헌과 함께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山海經·大荒西經, “大荒之中, 有山名曰日月山, 天樞也. 吳矩天門, 日月所入. 有神, 人面無臂, 兩足反屬於頭上, 名曰噓. 顓頊生老童, 老童生重及黎, 帝令重獻上天, 令黎邛下地, 下地是生噓, 處於西極, 以行日月星辰之行次.”

2) 『상서』 「주서·여형」

서주의 5대 임금 목왕(穆王, 재위 기원전 977?~922?)이 사구(司寇)인 여후(呂侯)에게 명하여 주나라 형법 제제정의 근거를 정하는 대목에 ‘절지천통’이 보인다. 목왕은 형벌이 치우의 작난에서 출발하여 요민들이 잔악한 형벌을 남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필두로 하여, 본인이 제정한 형법이 ‘하(夏)의 속형(贖刑)’처럼 가볍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황제의 덕치를 차용한다. ‘절지천통’의 내용을 보자.

목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대에 전훈(典訓)이 있다. ㉠ 치우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켰다. ㉡ 백성들에게까지 「치우의 난의 영향력이」 뻗쳐서 도둑질과 남을 해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치효처럼 의를 가볍게 여겨 반란과 난동을 일삼아,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상명을 거짓으로 꾸며서 칭하였다. ㉢ 요민들은 선을 신령하게 여기지 않고 백성들을 형벌로만 제재하였다. 다섯 잔악한 형벌을 ‘법’이라 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의·이·탁·경(剗·刑·桷·黥)등의 형을 함부로 행하고, 지나치게 형벌을 남발하여 제재하고,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백성들도 점차 서로 물들어 어수선하고 어지러웠고, 심중에 믿음이 없어서 약속과 맹세를 뒤엎었다. ㉣ 학정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에 무고함을 아뢰었다. 상제가 백성들을 굽어보시니 덕의 향기로운 행실은 없고 다만 형벌에서 나는 비린내뿐이었다. ㉤ 황제는 죄없이 죽음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엄으로 잔악한 이에게 갚아 묘족들을 멸절하여 대를 잇지 못하게 하였다. 중·려에게 명하여 땅과 하늘의 통함을 끊어서 신이 내려오는 일이 없게 되었다. ㉥ 제후들과 신하들이 밝디밝은 법도로 행했기 때문에 홀아비와 과부가 하더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었다. 황제께서 백성들에게 겸허히 물으시니, 홀아비와 과부가 요민들에 대해 원망했다. 황제께서 덕으로 위압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고, 덕을 밝히시니 사람들도 밝아졌다”²⁾

→ 주 목왕의 고대의 전훈을 빌린 내용에서 절지천통 사건의 배경이 ‘가혹한 악형’임을 알 수 있다. ‘구려족 수장 치우³⁾가 처음으로 난을 일으키자, 인간들이 이를 배워 점점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됐으며 묘족들은 잔악한 형벌로만 백성들을 징벌했다. 백성들이 이에 대해 상제에게 하소연하니, 명을 받은 황제가 묘족들을 멸절하고 절지천통하여 신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제후들이 함께 백성들을 덕으로 살피니 백성들이 밝아지게 되었다.

2) 尚書·呂刑, “王曰若古, 有訓. 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寇賊, 鴟義姦宄, 奪攘矯虔. 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 爰始淫爲劓刑桷黥, 越茲麗刑, 并制, 罔差有辭. 民興胥漸, 泯泯棼棼, 罔中于信, 以覆詛盟, 虐威庶戮, 方告無辜于上. 上帝監民, 罔有馨香德, 刑發聞惟腥. 皇帝哀矜庶戮之不辜, 報虐以威, 遏絕苗民, 無世在下. 乃命重黎, 絕地天通, 罔有降格. 羣后之逮在下, 明明棗常, 齔寡無蓋. 皇帝清問下民, 齔寡有辭于苗, 德威惟畏, 德明惟明.”

3) 상서·여형, 공영달 주석: “九黎之君號曰蚩尤.”, 書集傳 주서·여형, “蚩尤 馬云 少昊之末 九黎君名.” 국어·초어 주석, “九黎, 蚩尤之徒也”.

인격적 하늘로서의 상제가 등장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기도 하고, 지상의 황제를 통해 덕을 펼치기도 한다. 상제의 명을 받은 황제는 요 또는 순임금으로 보인다.⁴⁾ 황제는 신 치우⁵⁾의 난으로 인해 인간 백성들이 악행에 몰들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고, 또한 백성을 포악한 형벌로만 다스린 권력자 묘족들을 징벌해야 했다. 그러기에 먼저 땅의 묘민들을 멸절시키고, 치우와 같은 신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을 단절하는 조치를 하였다.

『상서』의 절지천통은 천지신인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신으로 인해 문란해진 백성을 악에 몰들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다. 황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이것은 2절에서 풀기로 한다.

3) 『국어』 「초어 하」

그로부터 400여 년 후 춘추시대 말 초 소왕(楚昭王, 재위 515~489)이 바로 율글 『상서』의 절지천통 내용을 본 후 당시의 현 대부인 관사보(觀射父, ?~?)⁶⁾에게 ‘중·려가 실제 천지를 통하게 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관사보가 답한 내용이 ‘절지천통’에 관련된다.

초소왕이 관사보에게 물었다. “『주서』에 ‘중·려가 실제로 하늘과 땅을 막아 통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만약 그렇게 막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하늘로 오를 수 있었다는 말인가? 관사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① 옛날에는 사람(백성)과 신이 섞이지 않았습니다(民神不雜). 사람들 중에 정명하고 전일하며 한결같이 경건하며 중정하여 그 지혜는 상하가 마땅함을 얻을 만하고, 그 성철함이 밝은 광채를 멀리 쏘아 밝게 비추며, 그 눈은 누구든 비취줄 수 있고, 그 귀는 무엇이든 명철히 들을 수 있는

4) 書集傳·상서·여형, “重即義 黎即和 堯命義和 世掌天地四時之官 使人神不擾 各得其序 是謂絕地天通 言天神無有降地 地(祗)[民]不至於天 明不相干.” 형벌이 치우의 작난에서 출발하여, 삼묘의 군주가 치우를 이어받아 잔악한 형벌을 남용하자, 순이 상제의 뜻에 따라 삼묘의 대를 끊었다고 하였다. 그 뒤 순은 온 천하에 덕을 밝혀 백성이 선악을 구분하게 하고, 백이(伯夷)로 하여금 예로써 백성들이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연에 막으며, 고요(皐陶)를 형관(刑官)으로 삼아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형벌의 중(中)을 밝혀 민심(民心)을 검속하여 덕을 공경하게 함으로써 백성의 떳떳한 본성을 돕도록 하였다. ; 공안국과 공영달은 ‘황제(皇帝)’를 ‘요순’으로 보았지만, 채침은 ‘순’이라 하였다.

5) 歸藏易·啓筮, “蚩尤出自羊水, 八肱八趾.” 述異記, “蚩尤氏耳鬚如劍戟, 頭有角.”, “有蚩尤神, 俗云人身牛蹄四目六手. …… 蚩尤齒長二寸, 堅不可碎.” “軒轅之初立也, 有蚩尤兄弟七十二人.”

6) 通鑑節要 1권 周紀顯王, 丙寅14년의 내용을 번역; 춘추시대 초나라 대부 왕손(王孫) 어(圉)가 진(晉)나라를 초문하자 조간자(趙簡子)에게 “초나라는 주옥인 백형(白珩)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관사보를 보물로 여긴다.”고 대답했다. 고 할 정도로 관사보는 현명한 대부로 알려졌다. 그는 훈사(訓辭)를 잘 지어 제후와 외교적인 일을 행할 때에 자기 군주를 험뜯거나 놀림감으로 만든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명신이 강림하였는데, 남자는 격이라 하고 여자는 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신의 위치와 그 서열을 배치하는 일을 제정하고, 희생과 제기와 사시에 맞는 복색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선대 성인의 후손 중 밝은 덕행을 지닌 자에게, 산천의 명칭·고조의 신주·종묘의 일·소목(소목: 종묘나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의 순서·공경에 힘쓰는 일·예절의 적절함·위의를 준칙·용모의 단정함·忠信의 성실함·제복을 마련할 줄 알게 하며 신명을 공경하는 자를 태축으로 삼았습니다. 명족의 후손으로서 사계절마다 자라는 곡식·희생의 종류·옥과 비단의 종류·제복의 표준·제기의 수량·신주의 선후를 안배하는 법도·병풍의 위치·제단을 설치할 장소·천지의 신명·성씨의 유래 등을 잘 알면서 옛 전제를 잘 따르는 자를 종백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천, 지, 신, 민과 만물을 유별하는 관원을 두었으니, 이를 오관이라 하며, 각자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여 서로 혼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충신이 있고, 신은 덕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성과 신을 맡은 관원의 일이 달랐고, 공경하면서도 모독하지 않았으므로 신은 좋은 곡물을 내려주고, 백성들은 그 곡물로 제사를 받들었기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고, 필요한 재물이 결핍되지 않았습니다.

㉠ 소호씨가 쇠락해지자 구려가 덕을 어지럽히고 백성과 신이 복잡하게 섞여서(民神雜糅) 백성과 신의 일을 맡은 관원들이 명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제사를 제 맘대로 지내고, 집집마다 무사를 두어서, 약속과 성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지내는 제사 때문에 재물이 모자랐으나, 그 복이 내려지는지 알지 못하였다. 제사의 범도가 없어서 백성과 신의 지위가 동격이 되었고(民神同位) 백성들은 함께 약속한 일이나 맹서 따위를 모독하여, 신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은 백성들의 규범에 익숙해져서, 제사 지내는 행위를 정결함을 바라지 않았고, 좋은 곡식을 내려주지 않아 제사 지낼 물질(곡식)이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재앙이 거듭 닥쳐서 그 기운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 전욱이 이러한 상황을 이어받아 남정인 중에게 명하여 하늘의 중신(衆神)을 모아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북정인 여에게 명하여 땅의 백성들을 모아 그 일을 말도록 하게 하여, 옛 법을 회복시켜 천신과 민중이 서로 침범하여 모독함이 없게 하니, 이것을 ‘땅과 하늘이 통하던 것을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 뒤에 삼묘가 구려의 흉한 덕을 이어받아 천하를 어지럽히자, 요가 다시 중·려의 후손을 육성하여 그중 선인의 일을 잊지 않은 자에게 다시 옛 제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 하·상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려씨의 후손이 대대로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를 분별했던 것입니다.

㉤ 주나라에서는 정백휴보가 그 후손이었는데, 선왕(宣王) 때에 [천지를 주관하던] 관직을 잃어 사마씨가 되었습니다. 휴보의 후손은 여전히 조상을 높이고 신격화하여 백성들로부터 위엄을 세우고 말하기를, ‘중씨는 진실로 하늘을 높이지게 하였고 여씨는 진실로 땅을 억눌러 낮아지게 하였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 「유왕·평왕」의 난세를 만나서 더 바로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생겨난 이후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서로 접근한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7) 國語·楚語 下, “昭王問于觀射父曰 周書所謂 重黎 實使天地不通者, 何也. 若無然, 民將能登天乎 對曰 非

→ 소왕은 왕이 된 자로서 절지천통의 의미를 절감하기보다 ‘실제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당시 시대를 통찰하고 있던 관사보로서는 절지천통의 내용과 의미가 현상적으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릴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에, 왕을 깨우치고자 고대로부터 동주 당시까지, 소위 지천통의 시대로부터 절지천통의 시대까지 인신관계의 변곡을 역사적 토대 위에 언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신부잡·민신이업하여 백성은 충·신, 신은 명덕하여 서로 공경했기에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구려가 덕을 어지럽힌 후 인신잡유·가위무사·민신동위·신압민척하여 관원들이 명물을 구별하지 못하였고, 신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백성들에게 재앙이 거듭 닥치게 되었다. 이에 전욱이 중에게 명하여 하늘의 신들을 모으게 하고, 여에게는 땅의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절지천통을 시행했다. 요임금 시절에도 중·려가 삼묘를 제압하여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 등을 분별하였다. 또한 하·상나라까지 중·려의 후손들의 역할이 컸으며, 주 선왕에 이르러 관직을 잃었음에도 중·려의 후손이 여전히 질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관사보는 위와 같이 절지천통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중·려와 그 후손들의 역할’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의 흐름을 인신관계를 통해 바라본 그의 관점이 독특하다. 즉 그의 연표에서 ㉠ 인신조화 시대 → ㉡ ~ ㉢ ~ ㉣ ~ ㉤ 인신의 부조화의 시대를 절지천통 등으로 잠시라도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 ㉥ 유왕·평왕 시절 이후 인신부조화의 난세의 지속으로 회복 불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황금기, ~:회복기]

이상 ‘절지천통’과 관련된 시대와 성격이 다른 세 문헌을 보았다. 문맥상 ‘중·려가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 『국어』 ㉢의 내용을 통해 『산해경』의 수수께끼도 풀리는데, 전욱이 중에게 하늘을 위로 들어 올리고 땅을 눌러 내리라고 명한 이유는 하늘·땅의 수직적 이격을 더 해서 신인간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함이며, 이 부분이야말로

此之謂也. 古者, 民神不雜. 民之精爽不攜貳者, 而又能齊肅衷正, 其智能上下比義, 其聖能光遠宣朗, 其明能光照之, 其聰能聽徹之, 如是則明神降之, 在男曰覲, 在女曰巫. 是使制神之處位次主, 而為之牲器時服. 而後使先聖之後之有光烈, 而能知山川之號, 高祖之主, 宗廟之事, 昭穆之世, 齊敬之勤, 禮節之宜, 威儀之則, 容貌之崇, 忠信之質, 禋絜之服, 而敬恭明神者, 以為之祝. 使名姓之後, 能知四時之生, 犧牲之物, 玉帛之類, 采服之儀, 彝器之量, 次主之度, 屏攝之位, 壇場之所, 上下之神, 氏姓之出, 而心率舊典者, 為之宗. 于是乎, 有天地神民類物之官, 謂之五官, 各司其序, 不相亂也. 民是以能有忠信, 神是以能有明德, 民神異業, 敬而不瀆, 故神降之嘉生, 民以物享, 禍災不至, 求用不匱. 及少皞之衰也, 九黎亂德, 民神雜糅, 不可方物. 夫人作享, 家為巫史, 無有要質. 民置于祀, 而不知其福, 烝享無度, 民神同位, 民瀆齊盟, 無有嚴威, 神狎民則, 不鑄其為, 嘉生不降, 無物以享, 禍災薦臻, 莫盡其氣. 顓頊受之, 乃命南正重, 司天以屬神, 命火正黎, 司地以屬民, 使復舊常, 無相侵瀆, 是謂絕地天通. 其後, 三苗復九黎之德, 堯復育重黎之後, 不忘舊者, 使復典之, 以至于夏商. 故重黎氏世敘天地, 而別其分主者也. 其在周, 程伯休父其後也, 當宣王時, 失其官守, 而為司馬氏, 寵神其祖, 以取威於民, 曰重實上天, 黎實下地, 遭世之亂, 而莫之能御也. 不然, 夫天地成而不變, 何比之有.”

소왕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수직으로 더욱 이격된 공간은 인신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다음 절에서는 세 문헌의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세 문헌에 나타난 절지천통 내용 분석

세 문헌에서 절지천통에 대한 쟁점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상서』와 『국어』에서 절지천통을 명한 임금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아울러 절지천통을 상징성 그리고 제도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현상적·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것이 옳은 답일까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문헌에서의 절지천통의 발단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표로 만들었다. 아래 <표> 1을 보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표 1> 고대 세 문헌의 절지천통의 발단과 과정
<Table 1> The beginning and process of three ancient texts on Sky-Earth Separation

문헌	절지천통의 발단과 과정	
산해경	전욱이 중·려에게 하늘을 위로 들어 올리고 땅을 눌러 내리라고 명함. 하늘 땅의 공간을 더욱 이격시킨다는 뜻, 어떤 목적인지 내용 파악 불가함	
상서	발단과 과정	신 치우의 난(황제 시절) ⇒ 백성들 악행 ⇒ 묘족이 잔악한 형벌로만 백성들을 제재 ⇒ 원율이 천지에 가득함
	절지천통	황제(요순)가 묘족의 대를 끊은 후, 중·려에게 명하여 하늘에 있는 신들을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 함(罔有降格)
	절지천통 이후	제후들과 신하들이 밝은 법도로 다스림. 황제가 덕으로 위압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밝아짐
국어	발단과 과정	소호 쇠락 무렵 구려가 덕을 어지럽힘. 인신잡유·가위무사·인신동위 ⇒ 모든 사물이 방정하지 못함 · 신의 권위 추락 ⇒ 물질 고갈, 재앙 연속. 신인혼돈
	절지천통	전욱이 중에게 하늘의 신들을 주관하게 하고, 여에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겨 옛 법을 회복시켜 천신과 민중이 서로 모독함이 없게 함
	절지천통 이후	- 요 시절: 중·려가 삼묘를 제압하여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 등을 분별 ~ 하·상나라까지 이어짐 - 주나라 시대로 접어들며 중·려가 관직을 잃고, 서주의 유왕·동주의 평왕 시대로 접어들며 인신잡유

<표 1>에서 보듯 세 문헌은 절지천통의 발단과 전개가 다르다. 『산해경』에서는 전욱이 중·려에게 명해서 지천 사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상서』는 황제 시절의 치우(신)의 난을 절지천통의 발단으로, 백성들에 대한 잔악한 형벌을 절지천통의 원인으로 한다. 요순은 지상의 묘민

을 멸족하고, 악의 근인인 신들을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절지천통을 취한다. 문맥상 절지천통은 ‘하늘과 땅의 통로(길)를 막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지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듯한 형태이다. 『국어』에서는 소호 말기에 구려가 덕을 어지럽힌 것을 절지천통의 발단으로, 그 후 인신이 무질서해져서 물질이 고갈되고 재난이 연속된 것을 절지천통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전욱은 중·려로 하여금 하늘 신과 땅의 백성을 관장하게 하고 옛 법을 회복시켜 천신과 민중이 서로 모독함이 없게 조치하였다. 즉 천지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어서 요순시절에도 삼묘의 난을 제압한 내용이 보인다.

『상서』는 황제 시절 치우의 난을 요순이 차단했으며, 『국어』는 소호 말기 구려의 난덕을 전욱이 절지천통을 강구했기에 시대적 배경과 절지천통을 명한 임금이 다르다.

이러한 괴리현상은 무엇 때문인가. 우선 『상서』는 형벌의 시작이자 형정의 근본이념을 논하기 위한 치우시절부터 요순시대까지의 기록이지만⁸⁾, 『국어』는 고대부터 서주 관사보 당시까지의 신인부조화에 대한 긴 시대적 여정의 기록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 곧 『상서』에서 목왕은 자신의 시대에 형정 제정이 목적이기에 전욱 시절의 사적들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국어』는 인신의 조화·부조화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조망했기에 소호 이후 전욱 시절의 절지천통을 언급했고, 시대가 흐른 뒤 삼묘의 난을 요순이 옛 제도와 전장으로 회복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즉 『국어』에 절지천통이라는 용어가 한 번만 보이지만, 절지천통과 같은 상황이 두 번 이상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두 문헌의 주제가 다르기에 각각 절지천통을 특정한 시기가 다르며, 절지천통 사건이 두 번 이상 있을 수 있기에 절지천통을 명한 임금이 요순, 전욱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며 자명하다. 곧 『상서』에 보이는 치우(신)는 작란의 시조이며, 요순임금 시절에도 절지천통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절지천통의 의미가 『상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현상적·물리적 공간단절을 의미한다면, 『국어』에서는 옛 제도를 회복하게 한다든지의 내용으로 보아 제도적 조치로 변모하고 있다.⁹⁾ 이에 대해 관사보가 의도적 오독(誤讀)을 통해 『상서』에서의 신화적 사유가 『국어』에서 인간사로 변질되었다(Lee, 2002: 453-454). 이것은 관사보가 신 하늘을 초월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이성적 의식으로 전환한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세 문헌의 비교를 통해 절지천통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세 문헌 중 특히 『국어』와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의 절지천통에 대한 관점 비교와 신인관계를 통한 역사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8) 상서·여형 편은 주 목왕이 형정을 재제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요순우 시대의 형정의 근본이념을 끌어오기에 황제는 곧 요순이며, 역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

Ⅲ. 『전경』의 ‘절지천통’의 의미

이 장에서는 고대 세 문헌 중 특히 『국어』와 4,000여 년 이후 현대 문헌인 『전경』¹⁰⁾ 속 「전교」의 인신관계를 통한 역사관에 대해 살핀 후, 대순사상에서의 절지천통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에서 지향하는 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전경』 속 절지천통 의미와 역사관

『전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예시 8절>

상제께서¹¹⁾ …… “후천에는 또 ㉠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造化)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 벼슬하는 자는 화권(化權-저울추)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사망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위 두 구절을 통해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선·후천의 특징을 간명하게 알 수 있다. 선천은 과거 인류 역사를 언급하는 용어로 묵은 하늘, 노천이라고 하여 상극이 지배하고 있는 묵은 세상을 말한다. 후천은 명천이자 앞으로 오는 미래의 세계로 선경 또는 지상낙원이라고 지칭한다.

<예시 81절> 을 통해 후천이 아닌 선천은 위무와 형벌을 써서 창생을 법리에 맞지 않게 다스렸고, 벼슬하는 자는 분에 넘쳤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와 쇠병사장의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고, 빈부의 차별이 있고 하늘이 높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없으며, 수·화·풍(水火風)의 삼재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바로 선천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구절 속 ㉠, ㉡의 내용은 4,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치우의 작란에서 출발하여 부도덕해진 백성들을 권력자 묘민들이 잔악한 형벌로만 다스렸던 『상서』와 『국어』 속 시대

10) 전경은 1974년에 대순진리회 출판부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대순사상에서의 상제 생전의 행적과 사상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간과 세계의 통찰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전경은 초판 이후 증보 과정이 거의 없는 경전으로 전경 12판(1989)을 주된 인용 서적으로 삼는다.

11) 여기서의 상제는 고대 세 문헌의 상제와는 다른, 후천을 여는 개벽장으로서의 상제이다.

로 향하고 있다. 화권(권력)을 쥔 사람들의 책무는 저울추를 세밀히 움직여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올바르게 않은 권력을 휘둘렀기에 세상은 점점 원율과 탐움이 가득 찬 번뇌의 세상으로 변해갔다. 그러하기에 ㉔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었던 세상을, 상제의 명을 받은 전욱 또는 요순이 하늘을 더 위로 끌어 올려서 신이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하게 절지천통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인의 부조화(신↔백성↔권력자)로 인한 상황은 시대가 점철되며 회복되지 못하고 〈예시 8절〉의 내용처럼 점점 하늘 땅 뿐만 아니라 삼계가 두루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선천의 현황에 대해 『전경』의 교운2장 26절 「전교(傳敎)」를 보면 쉽게 조망할 수 있다. 「전교」는 1923년(계해)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의 4,617년이 선천 일원(一元)의 시작이다.¹²⁾ 라고 하며 4,617년간 각 시기별 성인들의 가르침과 종교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다. 일원(一元)은 황제 현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세부적으로 초통 중통 계통으로 나뉜다.

1923년(계해) 이전의 4,617년이 선천 일원의 시작이다. 그 일원은 황제현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세부적으로 초통 중통 계통으로 나뉜다. 초통 시기는 모두 성인으로, 초회 513년 전반기에 황제 현원씨가 만상만사 제법제서로 백성을 가르쳤다면, 중후반기에는 효, 욕, 곡, 훈, 화, 우임금 등이 다스렸고, 중회에는 탕왕이 계회에는 문왕이 다스렸다. 중통 시기는 황제 즉위 후 1,539년이 지난 때이다. 각 회기에 응해 서가모니 공자 예수가 가르침을 전했다. 성인이 도는 행해지지 않고, 교(敎, 수도할 수 있는 가르침)만 전하였다. 계통 시기는 황제 즉위 후 3078년 이후부터 1,923년까지이다. 각 회기마다 불교는 양나라, 유교는 송나라(대송), 예수교는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가 융하여 창성하였다. 역시 가르침이 있었지만 지극한 성인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직 성인의 말씀을 서술한 책만 전하고 성인의 뜻만 바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끊어졌다.(교운2장 26절)

위 「전교」 구절에서 초통 시기를 덕치로 다스렸던 아홉 성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국어』에서 절지천통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한 시대와 그 인물들에 다름 아니다. 〈표 2〉를 통해 「전교」와 관사보의 역사관을 살펴보자.

12) 원은 전교에서 구분한 가장 큰 시간의 단위이다. 전교에서 원을 가장 큰 시간의 단위로 설정해 각 시기별 특징을 따라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 원의 순환을 따라 새로운 문명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당시에 도를 이끌고 있던 도주가 1923년(계해년)으로 마무리된 과거의 원을 연구하는 주선원과 주선원보를 두고 4,617년 동안의 1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거의 1원에 대한 성인과 종교의 흐름을 정리하며 「전교」를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천도의 흐름을 맞춰 새로이 열리는 신원의 시기를 따라 후천의 새 질서를 정립해나가기 위해서였다. 신원 발표후 새원으로서 1925년(을축년)에 대순진리사상의 전도인 무극도가 창도된다.(전경 교운2장 26절 참조)

<표 2> 전교 초통 시기와 관사보의 역사관
 <Table 2> The Jeongyo chotong period & Guanshefu' view of history

전교의 초통 시기 상황			관사보의 역사관
기간	내용	임금	관사보의 신인관
초통 1539년	만상만사, 제법제서의 시원	황제 현원	㉠ 민신부잡(民神不雜): 사람(백성)과 신이 혼란하지 않았음 백성 중에 정명하고 전일한 자에게 신명이 강림: 무(남), 격(녀) - 신명을 공경하는 자(태축), 옛 법도를 따르는 자(종백) - 오관(五官)이 그 순서와 본분에 따라 일을 맡음
	대대로 성군이 다스림	효(소호 금천씨)	㉡ 민신잡유(民神雜糅) ⇒ 민신동위(民神同位) 소호 시절 쇠락해져서 구려(九黎)가 덕정(德政)을 어지럽힘 백성과 신의 일을 맡은 관원들이 명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됨 제사 법도가 없어짐, 집집마다 무사(巫史). 약속과 성신이 없게 됨
		육(전육 고양씨)	㉢ 절지천통: 전육이 중에게 명하여 하늘의 여러 신을 주관, 려에게 명하여 땅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여, 옛 법을 회복시켜 천신과 민중이 서로 침범하여 모독함이 없게 함.
		곡(제곡 고신씨)	㉣ 민신잡유 ⇒ 삼묘가 구려의 어지러운 덕을 답습 요(堯)가 다시 중·려의 후손을 육성하여 옛 제도 회복 선인의 일을 잊지 않은 자에게 다시 천지의 일을 맡게 하였음
		훈(제요 도당씨)	
		화(제순 유우씨)	
		우(제우 하우씨)	㉤ 하나라 : 중·려가 대대로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祭位) 등을 분별
중회 513	1회 1성인	탕왕	㉥ 은나라 ~ 상나라 탕왕: 중·려가 대대로 천지의 질서를 세 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祭位) 등을 분별
계회 513	1회 1성인	문왕 (주나라)	주나라 말기(B.C.1100) 중·려의 후손인 서주의 정백휴보가 11 대 선왕(宣王, 828~782) 대에 사마씨(司馬氏)가 되었어도 신과 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음[重實上天, 黎實下地]
			서주 12대 마지막 유왕(782 ~ 771) 이후로 난세가 됨

<표 2> 에서 보듯 『국어』에서 절지천통을 설명하는 관사보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축으로 역사를 전개하며 4가지 단계로 나눈다. ① 치우 이전의 고대에는 인신부잡(人神不雜)의 충신 명 덕의 시대 ② 구려가 덕을 어지럽힌 이후 인신잡유(民神雜糅) 나아가 민신동위(民神同位)의 혼란의 시대 ③ 전육 시대에 이르러 중려의 절지천통 이후 요순임금과 하·상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복구상·무상침독(使復舊常·無相侵瀆)의 회복의 시대 ④ 관사보 자신이 살고있는 회복

불가능한 인신잡유 시대로 구분한다.

좀더 크게 관사보의 역사관을 분류하자면 ‘인신관계의 조화 또는 부조화’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대순사상의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관사보의 역사관은 「전교」 초통시기에 인신부조화의 시기이자 절지천통의 시기를 다스린 성인들과 맞물려 있음을 알게 한다.

관사보의 역사관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교」 초통 초회의 시기를 7분기로 나누어 보자. 초회 1/7분기에는 황제 헌원씨가 만상만사 제법제서의 시원이었던 시기가 바로 관사보가 바라본 ㉠ ‘민신부잡’시기로 민신이 서로 순서와 본분이 있고 서로 공경하여 상극이 없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초회 2/7~7/7분기까지 악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여섯 분의 성인이 대대로 다스렸다. 즉 ㉡ 2/7분기 소호가 쇠할 무렵 구려의 악정으로 민신잡유·인신동위의 시대가 되어갔다. ㉢ 3/7분기 전욱이 절지천통으로 당시를 극복하였다. ㉣ 4/7분기 제곡 시절을 지나 5/7분기 요순시절, 삼묘가 등장하여 혼란기가 있었으며, 이를 중·려 후손들이 술선수범하였고 ㉤ 6/7분기 하나라의 우, 7/7분기 상나라의 탕왕 시절까지도 중·려의 후예가 대대로 천지의 질서를 세우고 천신과 민중의 제위 등을 분별하여 사복구상·무상침독을 위해 노력했다. 초회와 달리 중회에는 관사보의 생각과 같이 1회에 1성인 ㉥ 상나라의 탕왕만이, 계회시절도 1회 성인 ㉦ 문왕을 마지막으로 하여 절지천통과 같은 위기를 넘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관사보는 정명한 사람에게 신이 강림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람을 공경하는 자들이 각각 법도와 위계질서가 있어서 각자의 본분을 다했으며 인신이 각각 충신 명덕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대를 이상적인 황금시대로 보았다. 이 시대가 바로 「전교」 황제 헌원시대로 만상만사, 제법제서의 시원시대로서 인신의 조화가 이루어졌던 화평한 시대였다.

즉 대순사상은 「전교」를 통해 일원 4,617의 전반기 1,539년의 시기를 덕치로 다스렸던 성인들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통 초회 513년 동안 황제 헌원씨로부터 효, 욱, 곡, 훈, 화, 우임금 등 일곱 분의 성인들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인신을 조화시켜 안정을 꾀하였음을, 중회 513년 간은 탕왕 한 분이, 계회 513년 동안에는 문왕 한 분이 인신의 조화를 도운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전교」 초통 시기의 초회 기간에는 모두 성인 시대였고, 중회·계회 기간 동안에는 겨우 한 분씩 출현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전교」의 내용 중 중통과 계통시기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 “중통 시기에는 한 회마다 석가·공자·예수가 하나의 가르침만을 전했는데, 성인의 도는 행해지지 않고, 교(敎, 수도할 수 있는 가르침)만 전하였다. 계통 시기는 각 회기마다 불교는 양나라, 유교는 송나라(대송), 예수교는 로마에서 하나의 종교가 응하여 창성하였다. 역시 가르침이 있었지만 지극한 성인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직 성인의 말씀을 서술한 책만 전하고 성인의 뜻한 바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끊어졌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교법> 3장 26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즉 선천시대 4,000여 년의 흐름 속에 신성이 성·웅을 겸비한 정교일치의 체제에서 점점 성·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교가 갈려 진법이 점점 흐려지게 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진법 구현을 위해 초통 초회에는 총 일곱 분의 성인이 나타나다가, 초통 중회부터는 한 분의 성인이 출현했었고, 중통 기간에 이르러 석가·공자·예수가 가르침만이 전해졌고, 점점 정치와 교화가 갈리는 다시말해 성웅이 겸비되지 않고 인신이 부조화된 회복 불가능한 시대로 인식하자 성인들이 모습을 감추었고, 결국은 성인의 뜻한 바 내용조차 끊어지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예시 8절>의 구절 ‘갈수록 천지인 삼계가 두루 통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인식한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절지천통은 『산해경』과 『상서』의 내용처럼 전육시절에 신·인간의 더 이격된 수직적 분리를 통해 신인간이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면, 시대를 흘러 요순시대에도 또 한 번의 절지천통적 상황을 극복하되 공간적 이격과 아울러 2장 1절 『상서』 ㉔처럼 제도적 장치를 실시하여 천지인신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 신은 그 간격을 회복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게 되었다.

이상 『전경』 「전교」와 『국어』의 관사보의 인신의 관계를 통해 역사관을 바라본 바, 인신의 조화 또는 부조화의 시기를 성인들이 치세를 했으며, 바로 이 시기를 역사의 변곡점으로 삼았다는 공통된 역사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사보와의 크나큰 차이점이 있다면 2장 1절 『국어』 ㉔의 내용에서 보듯이 신인관계를 무격(巫覡)을 중심으로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대순사상의 지향성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두 문헌 특히 『상서』는 황제 시절 치우의 난을 필두로 신인의 부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는 황제 헌원 시절부터 기록하면서 모든 것의 시원 시대라고 하며 ‘치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유명한 치우와 황제의 타락 대전을 「전교」에서 간과할 리 만무하다. 이에 치우와 황제 헌원을 바라보는 대순사상적 시각, 그리고 절지천통을 통해 대순진리회에서 지향하는 세계는 무엇인가를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치우와 황제에 대한 기록은 『산해경』, 『상서』, 『국어』, 『사기』 등과 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여러 서적을 통하여 전하지만, 특히 치우에 대한 기록의 편차가 심하다. 치우가 작란하여 큰 안

개를 지었으므로 황제가 지남거로써 치난하였도다.¹³⁾ 라고 하며 사마천을 필두로 황제를 덕의 전형으로 숭상한 반면 ‘치우’는 악의 화신이자 황제의 원수로 대립시켰다. 즉 선과 악의 대립으로서의 황제와 치우가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성향이 짙다(Kim, 2007: 208).

거듭 언급하지만 『전경』에서는 황제헌원에 대해 4,617년 정사년에 황제 헌원이 왕위에 올랐고, 만상만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법과 모든 글의 근원이 된다. 천문, 지리, 인사, 모두 황제 때부터 가르침이 시작되었고, 또 사기에서 역시 기록하기를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¹⁴⁾ 그리고 치우에 대해서는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가 지남거(指南車)로써 치란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롭다.” 라고 하여 치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치우와 묘민에 대한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Lee, 2002: 468)¹⁵⁾ 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전경』에서 바라 본 ‘선천의 현실 자체가 상극이기에 빚어진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이루지 못한 치우의 원한에 대한 해원의 뜻도 함의할 것이다. 이는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상제는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드는, 그리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¹⁶⁾ 상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후천의 세상은 황제를 시원으로 하지 않고 요·순(堯舜)의 도가 다시 나타난다.¹⁷⁾고 하였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상제의 의지와 뜻은 무엇일까? 대순사상에서의 지향하는 시대가 요순시대이기에 이에 대해 『전경』과 세 문헌을 통해서만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

13) 황제는 소전의 자손으로 성을 공손, 이름은 헌원이라 불렀다.…… 헌원 때는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 정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헌원은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서 조공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니 모두 신하로 복종했다. … 치우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 탁록(涿鹿)의 들에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토덕(土德)의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라 불렀다. 사기: 본기(번역문), 2013. 5. 1., 사마천, 김영수)

14) 전경 교운 2장 26절

15) 전경 교법 3장 30절 ; 述異記·雜敘, “치우는 옛 전설 속에서 지위와 명망이 높다고 알려졌다. (知蚩尤在古傳說中位望高也.)” 述異記·雜敘, 蚩尤軼事云 “치우는 구름과 안개를 만들 수 있다(蚩尤能作雲霧)” ; 袁珂(1993), 中國神話通論 166 , 원가는 여형의 기록이 치우가 압박 받는 묘민을 이끌고 일으킨 황제와의 투쟁 신화와 관련이 깊다고 하면서 ‘천지단절’을 황제족과 염제족의 투쟁으로 보았다.

16) 전경 권지 1장 21절, 전경 예시 6절

17) 전경 교운 1장 46절

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 나니라.” 18)

위와 같이 성인 요의 모습은 역법을 알아내어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밝혀내어 백성들이 농사 때를 잃지 않도록 하였다.¹⁹⁾

주지하다시피 요순은 유가적 관점에서 ‘이상적 인간의 표상’과 ‘이상적 정치가이며 윤리의 표상’으로 본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도 성운을 겸비한 성군으로 묘사한다. 교법 3장 26절

이 부분은 특히 1장 1절 『상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로 절지천통을 명하고 신인간의 회복을 지도하는 모습에서 보인다. 악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백성들이 심중에 믿음이 없어서 약속과 맹세를 뒤엎는 것을 인식한 요순임금이다. 그러기에 묘족의 대를 끊고 절지천통을 단행한다. 그후 제후들로 하여금 흠아비와 과부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게 하였다. 이는 『전경』의 상제의 공사에 “선천에는 청춘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외로이 살지 않도록 개가²⁰⁾하는 조치와 연관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울러 덕으로 위압하니 백성들이 두려워하였고, 덕을 밝히시니 사람들도 밝아졌다고 하는 여형의 마지막 대목에서 성운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있다.²¹⁾

이상 대순사상에서의 요순임금은 『상서』와 『국어』에서 절지천통을 명하고 신·인간의 회복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듯이 이러한 선천 상극세상을 바로잡는 모습이 바로 후천의 표본이 되었을 것이기에 대순사상에서 요순의 도를 지향하며 후천 선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18) 전경 교운 1장 30절

19) 書集傳·堯典, “曆象日月星辰하여 敬授人時.” 전경, 예시 31절,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선기 옥형 도수를 정하시니”. 대순사상에서는 순이 제위를 물려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선기옥형을 살핀 것으로 본다.

20) 전경 공사 2장 17절

21) 백이(伯夷)는 典禮를 내려서 「백성을 가르치되」 法으로 규제하였고, 우(禹)는 수토<홍수>를 다스려 이름 없는 산천에 이름을 지어 주었고, 稷은 파종하는 법을 내려서 농사를 지어 좋은 곡식이 번식하게 하였으니, 이른바 ‘요임금이 세 임금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事功을 베풀려는 것을 걱정하게 했다.’라는 것이다. 세 임금이 공을 이루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느니라. 곧 禮敎가 갖추어지고 衣食이 풍족함을 말한 것이다. : 書集傳·상서·여형, 乃命三后 恤功于民, 伯夷降典 折民惟刑, 禹平水土 主名山川, 稷降播種 農殖嘉穀, 所謂堯命三君, 憂功於民. 三后成功, 惟殷于民,

IV. 결론

본 연구는 ‘절지천통’ 고사가 있는 중국 문헌 『산해경』, 『상서』, 『국어』와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 예시 81절에 “후천에는~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의 내용과 예시 8절에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다.” 고한 구절이 의미가 같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절지천통에 대한 세 문헌과 『전경』 구절의 의미 비교 후 대순사상에서 바라보는 절지천통의 의미와 그 지향점을 살피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세 문헌의 절지천통 고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산해경』은 전옥이 중·려에게 하늘 땅 사이를 더욱 벌리게 하는 단순기록이다. 『상서』는 치우(신)로 인해 시작된 난으로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는데, 백성들을 흉악한 형벌로만 제제한 묘족의 대를 끊고, 중·려에게 명하여 신이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국어』에서는 구려의 악덕 이후 무너진 인신관계로 재앙이 거듭 일어나자, 전옥이 중에게는 신을 관장하게 하고, 여에게는 백성을 관장하게 한 것이 절지천통이다. 세 문헌의 상호비교를 통해 ‘중·려가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 『산해경』에서 전옥이 하늘·땅의 수직적인 공간 이격을 더 해서 신의 역할과 인간의 직분을 서로 넘지 못하게 절지천통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세 문헌의 쟁점을 살폈다. 절지천통의 발단과 그 전개과정이 다르다. 『상서』는 황제 시절의 치우의 난을, 『국어』에서는 소호 시절 구려가 덕을 어지럽힌 것을 절지천통의 발단으로 보았다. 즉 『상서』와 『국어』에서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며 절지천통의 근인자와 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절지천통을 명한 임금에 대해 『산해경』에서는 전옥이며, 『국어』에서는 전옥으로 나오고 그 이후 절지천통과 같은 상황을 요순임금이 다스린 대목이 보인다. 이로 보아 『상서』의 상황은 전옥 이후 요임금이 삼묘 시절 절지천통과 비슷한 상황을 다스렸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세 문헌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물리적 또는 제도적 장치로써의 절지천통을 통해 하늘(신)과 땅(백성), 즉 무너진 신인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각 시대의 임금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세 문헌의 절지천통한 상황이 곧 선천 상극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경』 예시 81절에서 확인하였고, 후천은 예시 81절처럼 된다는 것으로 세 문헌과 『전경』이 역사적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어』와 『전경』의 「전교」가 인신간의 관계를 통해 역사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시절마다 성인들이 출현하여 인신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의미있는 고찰도 진행했다.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선천 치우 등을 절지천통의 근인으로 보지 않는다. 즉 하늘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어 두 문헌의 시각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전경』에서는 후천 개벽시대를 맞이하여 요·순시대를 지향하는 이유는 절지천통 후에 신인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덕치를 행하여 창생들을 조화로써 법리에 맞게 다스린 모범적 성인들이 요·순임금이었기 때문임을 고

찰했다.

결국 시대를 뛰어넘어 네 문헌 모두 신은 명덕을 밝힐 수 없었고, 신의 영향을 받은 백성은 충신할 수 없었던 역할 부조화가 절지천통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나아가 이 문헌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 문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하늘과 땅의 분리로부터 천지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하나의 뚜렷한 주제로 관통됨을 알 수 있었다.

수직으로 더욱 이격된 공간은 인신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국어』의 마지막 단락에 ‘중씨는 진실로 하늘을 높아지게 하였고 여씨는 진실로 땅을 억눌러 낮아지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바로 서로 단절된 현 시대를 질타하고 있는 언표이다.

즉 대순사상에서 절지천통의 의미는 인신관계 조화와 부조화를 통한 선천시대의 갈등 상황을 새김질하며 향후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탈종교화시대에 문명의 발달로 인한 폐해인 신과 인간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이룰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Primary Sources]

典經. Jeon-gyeong - The Canonical Scripture

尚書. Shangshu.

尚書正義. Zhengyi.

山海經. Shanhaijing.

史記. Shiji.

國語. GuoYu.

書集傳. Shujichuan.

袁珂 (1993). 中國神話通論, 中國: 巴蜀書社.

[Secondary Sources]

정재서(2008),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번역서>

Eliade, M. *The sacred and the profane*. 이동하 역(1983). 성과 속. 서울: 학민사.

袁珂. 中國의 古代神話 정석원 역(2012) 서울:문예출판사

<학술지 논문>

- Ko, N. S. (1996). The meaning of the Sin-Won shown in the Jeon-Gyeong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Jeon-Gyo. *The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1, 413-443.
- Cho, H. S. (1998). Asian aspects of the heaven and earth disconnection myth and its meaning *The Journal of Korean Literary History*, 13, 146-173.
- Lee, Y. J. (2002). A Hermeneutic Review on the JueDiTianTong(絕地天通) Myth.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9, 445-472.
- Hong, Y. H. (2002). On the Myth and the Meta - myth of Zhong and Li.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s*, 15, 1-19.
- Kim, J. M. (2007). Dual Aspects on "Chiyou" A Devil as a Founding Scape goat.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25, 205-231.
- Lim, H. S. (2012). Rethinking the Myth of Sky-Earth Separation in Ancient China: Focusing on Chang Kwang-chih(張光直)'s Discussion.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9, 237-273.
- Kim, Ch. W. (2013). The Meaning of Asking again about The True nature of Human Beings.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14, 139-169.
- An, S. W. (2020). A Study on Symbols of Birds and Sun in Ancient East Asian Mythology and Primitive Religious Thought, *The Korean Society of Confucian Studies*, 40, 5-38.
- Yu, Y. O. (2016). The Orientation of Punishment Policy found in ShangShu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62, 45-86.

<박사학위논문>

- O, S. S. (2019). *The Unity of Family and State and Confucian Thought of Rule by Virt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 Seo, G. H. (1996) *A Study of myths in Shanhaic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 Lee, Y. J. (2000). *A Study on the Heaven-Ladder Myth of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Yonsei